

광주 청년예술가 “활동 지속위해 안정적 수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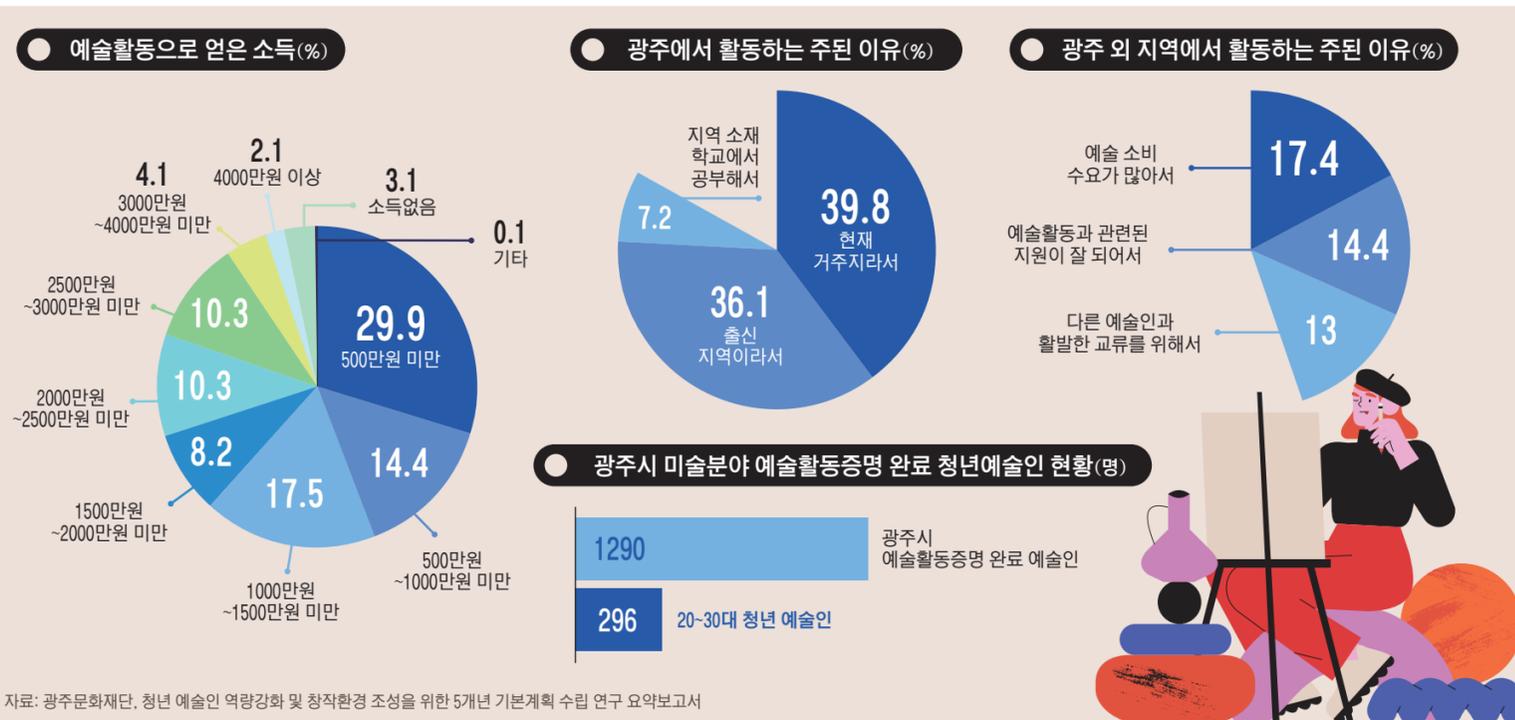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실태조사

최저임금 이상 소득 16.5% 그쳐 “광주” 지역적 특성 도움 안돼 대금 지급 지연 등 부당 대우도

광주에 ‘청년작가’는 얼마나 있을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광주에서 미술분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인구는 1290명이다. 이 중에서 20~30대에 해당하는 청년세대 인구는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광주에서의 예술활동이 지속가능하냐’에 대한 것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광주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이나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과반 이상이 활동 과정에서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작업을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광주’라는 지역적 특색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광주시 미술분야 청년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얻은 연간소득은 △없음 3.1% △500만원 미만 29.9% △500만~1000만원 미만 14.4% △1000만~1500만원 미만 17.5% △1500만~2000만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인 2500만~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청년예술인 비율은 16.5%에 그쳤다. 사실상 예술소득으로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셈이다.



불안정한 소득환경은 겸직 혹은 예술활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미술분야 청년예술인 중에서 △겸업 중인 예술인은 41.2% △예술활동을 중단한 인구는 3.1%로 두 개 응답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전 장르 청년예술인이 겸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낮고 불규칙한 소득이 42%로 가장 높았고, △예술활동의 고용 불안정성이 32.5%로 그다음 높았다. 예술활동을 중단한 이유 역시 낮고 불규칙한 소득이 46.9%로 가장 높았다.

미술분야 청년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았고 △창작지원금이라는 응답이 17.2%로 그 다음 높았다.

전 장르 청년예술인에게 광주에서 활동하는 주된 이유를 물었을 때, △현재 거주지라는 응답이 39.8% △출신 지역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반면 광주시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청년예술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술 소비 수요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17.4% △예술 활동과 관련된 지원이 잘 되어서라는 응

답이 14.4% △다른 예술인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3% 등으로 가장 많았다.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광주는 지역적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예술인이 예술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에 이르기도 했다. 부당대우 유형은 △대금 지급 지연 22.9% △계약내용에 없는 과업 지시 21% △대금 미수령 11.1% △계약기간의 일방적 연장 9.1% △저작권 분쟁 4.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주제 검열, 계약서 미작성, 출연료 반환

등이 있었다.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감독은 “광주에서 등용된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다각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 청년들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 가리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청년예술인이 여러 발굴됐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좋은 작가, 그 자체로 경쟁력 갖는 발판 필요”

1면서 계속

●고차분, 주요 미술시장서 ‘각광’

고차분 작가는 9월 4일 개막하는 전국 최대 미술시장인 ‘2024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 출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 작가가 광주에서 작업하면 서도 전국구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간 것은 최근 2~3년 사이다. 고 작가는 지난 2020년 전남문화재단이 국내 최대 미술품 경

매회사인 서울옥션과 공동기획한 프로젝트 ‘제로베이스 in 전남’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작가로 떠올랐다.

이후 서울옥션의 다른 경매행사에도 초대되는 등,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미술시장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광주 상업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차분’ 이름을 알리기까지는 긴 여정이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공방운영, 직장생활을 겸업했고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까지, 고단한 삶의 틈을 비집고 주어진 전시기회는 마치 사투와 같았다. 어쩌면 영원히 평화로운 곳, 집에 대한 천착에 이르렀던 것은 자연스러웠던 과정일지 모른다.

고 작가의 작업은 지난하다. 캔버스에 수많은 집을 빼곡히 채워 넣고 끊임없이 색을 얹히는 과정이 반복돼 고단한 삶의 과정처럼 ‘수행’의 시간이 이어진다. 금방 완성되지 않는 작품의 숭고한 가치를 맨

처음 알아본 첫 콜렉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진 시절부터 광주에서 내 작품을 알아봐 주신 원로 선생님이 계셨다”며 “내 작품을 좋아해 주는 애호가들이 나타나길, 일상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광주는 미술시장을 이끄는 갤러리나 화랑 환경이 전무하다 보니 서울 갤러리 들 초대로 전국·세계 아트페어에 참여하

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첫 콜렉터처럼 신진작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싶다”며 “광주는 활동 초반 작품세계를 소개할 수 있는 무대나 기회는 많지만, 그 이후의 판로가 다양하지 않다. 나 역시 전남문화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진출할 수 있었다. 지역성을 털어내고 ‘좋은 작가’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숨쉬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